

‘오픈런 ACC’ 첫발...기술 기반 창작, 열린 교육으로 풀다

7월 첫 행사에 427명 참여
예술가·창작자 호응 이끌어
워크숍·강연·퍼포먼스 등
새로운 창작 방식 실험 무대
연령·지역·분야 넘나든 참여
심화 과정 연계도 주목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의 기술 기반 예술 교육 프로그램 ‘오픈런(Open Learn) ACC’가 지난달 11~13일 427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은 ‘오픈런 ACC’ 강연 모습.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올해 처음 선보인 기술 기반 예술 교육 프로그램 ‘오픈런(Open Learn) ACC’가 예술가와 창작자들의 높은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7월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총 427명이 참여했다. 예술과 기술의 접점을 탐색하는 열린 배움의 장으로, 첫 회임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는 평가다.

최근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가 정리되면서, 운영 전반에 대한 반응과 향후 방향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

‘오픈런 ACC’는 ACC가 그간 운영해온 ‘역량 강화 과정’의 기초를 이어가되, 보다 가볍고 열린 방식으로 기술 기반 예술 창작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기획됐다.

장기간 고강도의 교육 형태였던 기존 프로그램과 달리,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기술을 체험해볼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전체 프로그램은 강연, 워크숍, 테크토크, 톨맷보기, 퍼포먼스 등 총 20여 개로 운영됐다. 이

중 워크숍은 14개 강좌로 구성됐으며, 사전 신청자 10명이 참여하는 소규모 실습 형태로 진행됐다.

워크숍에서는 코딩 입문부터 인터랙티브 아트를 구현해보는 것까지 폭넓은 주제를 다뤘다. 워크숍 전반 만족도는 ‘매우 만족’ 68.2%, ‘만족’ 21.2%로 긍정적인 의견이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강연은 예술·기술 융합에 대한 동시대 작가 및 전문가의 관점을 공유하는 이론 중심 세션으로

마련됐다. 여기에 최근 기술 흐름과 사례 등 실용적인 정보도 공유됐다.

일부 참여자는 짧은 강연 시간에 대한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지만, AI 영상 제작 과정에 대해 이해나 다양한 창작 사례를 접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테크토크’는 기술과 철학을 함께 고민하는 형식으로 구성됐으며, 참여자의 91.3%가 만족을 표했다. 실습·토론 비중을 늘려 장기 프로그램

으로 확대되길 바라는 기대도 확인됐다.

톨맷보기 프로그램은 블렌더의 기본 모델링 등 기초 체험 중심으로 운영됐다. 심화 과정 개설에 대한 수요도 다수 확인됐으며, 톨을 창작 도구로 활용하려는 창작자들의 관심이 드러났다.

퍼포먼스 분야에서는 사운드 프로젝트 아렉시보(Arexibo), 전자음악가 HWI, 소리와 이미지를 다루는 WYXX 등이 참여한 라이브 공연이 신선한 시도로 주목받았다.

무엇보다 이번 오픈런은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연령과 직업군이 참여한 점에서 의미가 컸다.

워크숍 참여자의 66%가 수도권 거주자였고, 전체 참여자의 약 40%는 현업 예술가 또는 창작자였다. 청년층에 집중되던 기존 프로그램과 달리, 연령 제한 없이 운영되며 중장년 작가들의 참여도 확대됐다.

위상은 문화교육과 학예사는 “짧은 교육 경험 이후 ACC의 심화 프로그램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출발점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ACC는 예술가를 위한 열린 창작계 플랫폼으로서 새로운 시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아이들 목소리로 전하는 광복 80주년 ‘아! 대한민국’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정기공연
오는 14일 광주예당 대극장서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오는 14일 오후 7시30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제145회 정기공연 ‘광복 80주년 기념음악회 애 대한민국’을 연다.

이번 공연은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무대로 마련됐다.

오준혁 객원지휘 아래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사진)과 함께 광주북구립합창단, 광주남

성합창단이 협연하며 알레지오 오케스트라와 빅보스 마칭밴드도 무대에 오른다. 광복회 회원들도 초청돼 공연의 의미를 더한다.

공연은 세 개 파트로 구성된다.

첫 무대는 ‘Happy (arr. Mark Brymer)’, ‘Walking on Sunshine (arr. Mac Huff)’, ‘I’m still Standing (arr. Pete Schmutte)’ 등 밝고 경쾌한 팝송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빅보스 마칭밴드

의 연주와 함께 소년소녀합창단의 안무가 어우러져 유쾌한 분위기를 만든다. 이어지는 두 번째 무대에서는 ‘새날이 오네(이호준)’, ‘평화의 세상(조성은)’, ‘아름다운 강산(arr. 박경아)’을 통해 광복을 기념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로 우리 사회가 바라는 ‘새날’을 노래한다. 휴식 후에는 알레지오 오케스트라가 베르디 오페라 ‘운명의 힘’ 서곡을 특별연주하며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피날레에서는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북구립합창단, 광주남성합창단, 알레지오 오케스트라 등 약 170여명이 함께 ‘아! 대한민국(우효원)’을 선보인다. 태극기의 건·곤·감·리 네 패를 상징하는 네 개 악장으로 구성된 이 곡은 광복의 기쁨과 나라의 번영을 염원하는 웅장한 하모니로 마무리된다.

/최명진 기자



전통 선율로 그려낸 자연의 울림
빛고을무등가야금연주단 환경콘서트
8일 북구문화센터...‘천년만세’ 등 연주

전통음악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기는 무대가 펼쳐진다.

빛고을무등가야금연주단(사진)은 오는 8일 오후 7시 광주북구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제3회 정기연주회 ‘환경콘서트 숲의 변주’를 개최한다.

올해 무대에서는 숲과 자연을 모티브로 한 다양한 작품들이 소개된다.

첫 무대는 2현가야금과 정악가야금 2대를 위한 신작 ‘천년만세’로 문을 연다. 이어 2현가야금 독주곡 ‘바람 강’, 가야금병창 신민요 ‘녹음창초, 고고천변, 봄 노래’ 등이 무대에 오른다. 후반부에는 2현가야금 4중주 ‘키 큰 나무 숲’과 6중주를 위한 창작곡 ‘유요(流搖)한’이 잇따라 연주된다.

이날 무대에는 예술감독 성심운을 비롯해 대표 김소연, 황승욱, 김경희 등 가야금 연주자 20여 명이 참여한다.

/최명진 기자

‘감각의 필터’로 들여다본 낯선 도시의 인상

파오 령 쿵 작가 레지던시 개인전
10일까지 호랑가시나무창작소

호랑가시나무창작소 레지던시에 참여 중인 대만 작가 파오 령 쿵(Pao Leng Kung)이 개인전 ‘필터(Filter)’를 개최한다. 전시는 오는 10일까지 호랑가시나무창작소 글라스폴리곤 지

하 공간에서 진행된다.

전시 ‘필터’는 광주라는 낯선 도시에 머물며 작가가 얻은 감각적 경험과 기억을 토대로 구성됐다.

작가는 인간의 인식이 언제나 굴절되고 변역된 형태로 작동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빛과 풍경, 언어, 물질 등의 요소가 개인의 감각을 통해 걸러지는 과정을 시각화했다.

전시 공간에는 최소한의 작업들만이 배치돼 있으며, 이는 이미지가 빠르게 소비되는 시대에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한다. 관람객은 미화되지 않은 시선을 통해 작가가 제안하는 ‘불완전함의 미학’을 마주하고, 부드럽게 조정된 초점과 느리게 현상되는 감각의 흐름을 경험할 수 있다.

파오 령 쿵 작가는 “각자가 지닌 언어와 시선의 차이로 인해 세상은 무수히 다양하게 해석된다”며 “이러한 감각적 분화를 통해 각자의 필터를 다시 인식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문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윤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